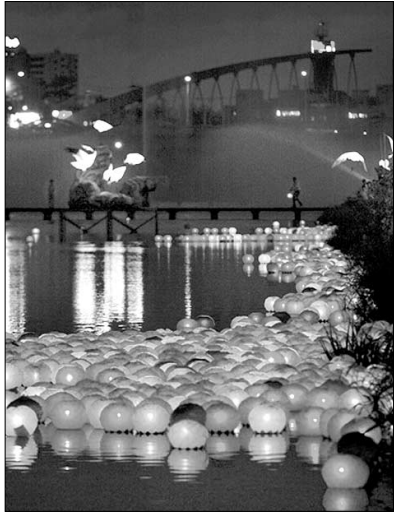


“직지 우수성 세계에 알리자”

청주청원사암련 무심천서 '제1회 직지찾기 유등축제'



청주 무심천에 떠 있는 유등.

형형색색 연등이 청주 무심천의 물결 위를 환하게 수놓았다.

청주청원사암련연합회(회장 각의)는 9월 1~4일 '제1회 직지찾기 유등축제'를 무심천과 청주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유등축제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널리 알리기 위해 1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및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가간 내내 무심천을 수놓은 '직지등' '학등' '연꽃등' 등 전통 한지등은 밤마다 달빛과 어우러져 유유히 떠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절경을 이뤘다. 높이가 3~4m

나 되는 20여개의 전통등과 직지찾기의 소원을 담은 '직지등' 200여개가 출품된 '전통등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청주 시민들과 불자들은 청주 예술의 전당과 무심천 일대를 거닐며 전통 등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불교문화축제의 화려함에 감탄했다. 직지심체요절의 정갈하고 감칠 맛 나는 '전통사찰음식 시식회'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이밖에도 행사기간동안 민영예술단의

전통등 200여점 전시 사찰음식 시식회도 인기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일 제1회 직지상 시상식에서는 체코 국립도서관장 블라스타 밀예제크씨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직지대법회'도 봉행했다.

청주청원사암련 회장 각의 스님은 법회에서 "직지축제 기간 동안 직지찾기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직지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유등문화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법회에는 풍주사 선원장 범주 스님,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을 비롯한 5000여명이 동참했다.

글·사진=혜철 충남 대전 지사장

스님·신도·지역민 한마음으로 불사

고흥 금탑사, 폐사지 위에 대가람 6일 회향

고흥 금탑사(주지 휴경)가 9월 6일 중창불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송광사 회주 범홍, 주지 영조,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호 스님을 비롯 송광사 교구 산하 스님과 지역기관장, 재가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축사에서 "폐허나 다름없던 사찰이 10여년 만에 대가람으로 면모를 일신했다"며 "대중스님은 물론 지역주민과 신도들의 간절한 원력에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범홍 스님도 법어를 통해 "대작불사를 이룬 신심은 거룩한 것으로 참 자이를 찾아가는 정진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중창불사는 지난 1991년 서림 스님(금당선원장)이 금탑사 주지로 부임해 12년여에 걸쳐 노력을 해온 결과다. 그동안 나한전, 지장전, 삼성각, 선원, 승당 등을 신축하고 극락전, 응향각, 명부전, 괘불탱화를



금탑사 중창불사 회향법회에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보수했으며 1000만 규모의 대법종을 조성했다.

금탑사는 신라 선덕여왕 6년(서기637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보물 제1344호 괘불탱화와 지방유형문화재 제102호 극락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년기념물 제239호 비자나무숲이 가람을 의호하고 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하남 상불사

새싹불자들의 열린 공간



하남 상불사는 미래불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7월 30일~8월 1일 해남 진학사에서 열린 '야단법석' 수련회 때 모습.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절이 있다. 경기도 하남시 전현동 중부고속도로 하남 IC 바로 옆에 위치한 상불사(주지 동화)가 그곳. 상불사가 '불교의 미래'와 통하는 이유는 매주 일요일 열리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법회가 상불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요일, 일반 불자는 상불사에서 '찬법'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법당은 물론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도량 곳곳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정령당하기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법회로 변화를 주고 있다. 주지 동호 스님은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 불교가 생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어 가야 하기에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집에서 밥을 먹을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불사는 동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올해 신도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젊은층 신자와 가족단위 신도가

법회·한자공부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 진력

하남 불교 활성화 위한 산사음악회 계획

때론, 법회가 끝나면 아이들은 대웅전에 모여 주지 동호 스님과 함께 한자 공부에 열심이다. 신도들은 이날만큼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도 흐뭇한 표정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상불사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은 물론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야단법석' 수련회를 열어 흥미를 돋운다. 법회 참석률과 한자공부 성적, 인터넷 상불사(cafe.daum.net/sangbulsa) 활용빈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금과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상불사가 사부대중의 알뜰방이요 쉼터로 자리

늘고 있는 것. 동호 스님이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눈맞춤식 포교'에 공을 들인 결과다.

동호 스님은 어린이집을 설립해 미래불자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불교계가 약한 하남지역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강한 신념이다.

동호 스님은 "하남지역 포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10월 25일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툴지만 착실히 추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박봉영 기자

봉은사 '선지식 및 명사초청' 법회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14회 걸쳐 웰빙 정치·경제·평화 등 주제 다양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가 큰 스님과 명사를 초청해 '선지식 및 명사초청법회'를 연다.

법회는 9월 25일 이성호 연세대 교수의 '모든 자녀가 1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인드라마공동체 상임대표 도범 스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등이 법사 또는

강사로 나선다.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희망의 웰빙정치' '불교와 경제의 상관관계' '아름다운 나눔과 진정한 보시' '생명평화, 인드라마' 등 주제도 다양하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선지식법회, <선요> 강좌 등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기획법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중심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선종 수사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511-6070 www.bongeunsa.org 박봉영 기자

날짜	법사(강사)	주제
9월 25일	이성호(연세대 교수)	모든 자녀가 1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10월 2일	보광 스님(前 해인사 주지)	발심과 수행
10월 9일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희망의 웰빙정치
10월 16일	김경남(코엑스 상무이사)	불교이론과 경제의 상관관계
10월 23일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삼학의 전통과 그 수행
10월 30일	도범 스님(인드라마명성공동체 상임대표)	생명평화, 인드라마
11월 6일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미래세대 포교를 위하여
11월 13일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아름다운 나눔과 진정한 무보시의 실천
11월 20일	정화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교육! 100년을 바라보다
11월 27일	미정	불교의 생명관
12월 4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	'선종 수사찰' 봉은사의 방향
12월 11일	해담 스님(경기도 광주 각화사 주지)	불교 상담은 이렇게
12월 18일	정현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소의계종 포교는 이렇게
12월 25일	현전해(고대법원 내과 전문의)	양약으로 바라보는 불교

천년고찰 외호 단풍나무 문화재 지정

고창 문수사 진입로 500여그루

고창 문수사(주지 선범) 진입로에 자생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지난 9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됐다. 단풍나무숲으로는 국내 최초 문화재가 된 문수사 진입로 단풍나무는 직경 30~80cm, 높이 10~15m, 나무둘레 2~2.95m 크기로 수령 100~400년의 노거수가 군락(20필지 12만65㎡)을 이루고 있다.



문수사 진입로의 단풍나무 군락.

문수사 주지 선범 스님은 "단풍나무 숲에 가을 단풍이 들면 부처님 영산회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듯 장엄하다"며 "천년 문수도량과 단풍나무 수호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군락지에는 단풍나무 이외에도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도 함께 분포되어있다.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빙의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무료강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주명리학	사주 로 초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으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집쟁쟁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킴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조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치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문화학회 회장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화 : (042)255-0734~5
•주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